

韓語雙元音/-ɨ/的區別特徵 與標準發音教育

鄭潤道*

中國文化大學

摘要

韓語雙元音/-ɨ/不僅在詞彙或是格助詞的使用上，皆是使用頻率非常高的音韻。本研究以韓語雙元音/-ɨ/的多種變異音使用為研究課題，這對海外韓語發音教育是具有意義的。本研究探討造成在語音及音韻學上[i], [i], [e]產生多種異音的因素，也探討韓語格助詞裡/-ɨ/轉音[e]的現象。經過本研究獲得結論如下：

第一，雙元音/-ɨ/在音韻特徵的識別上，由於半元音和主元音辨別的模糊性，因而產生[ij] > [i]，[ɥi] > [i]的兩種異音。它的異音根據在詞彙的使用位置，分別選[i]或[i]音來發音。

第二，雙元音/-ɨ/以格助詞的形態出現，本研究探討格助詞的/-ɨ/異音為[e]，參考『老乞大諺解本』採取歷史文獻考證法進行。格助詞‘으’相等於漢字‘的’功能，其讀音是否承襲自漢語中高音，如：閩南語[è]，來試探對漢語作為母語使用的臺灣學習者對格助詞異音[e]的認知樣相。另外，韓語母語者發音習性也對外國學習者的標準發音學習具有影響力，也是造成海外教育現場的困境和局限，不能疏忽。

總結來說，本研究將有助於外國初階學習者意識到自己可能誤解母語者的偏好發音方式，並且/-ɨ/需要掌握音韻特徵和形態學的條件，才能了解異音之間的差別，進而可防止發音和書寫上的錯誤。

關鍵詞：韓語、標準發音教育、雙元音 /-ɨ/、/-ɨ/的異音

* 中國文化大學韓國語文學系教授

A study on Korean diphthong /-ɨ/ and standard pronunciation education

Yun Do Chung^{*}

Chinese Culture University

Abstract

The Korean diphthong /-ɨ/ is used not only as a lexical word but also as a possessive particle. Therefore, it is used very frequently in daily life. This study focuses on the various allophones of the Korean diphthong /-ɨ/ to examine the factors that generate the various allophones [ɨ], [i], and [e].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distinction between semivowels and vowels in terms of phonetic features is ambiguous in the Korean language. Consequently, /-ɨ/ has two allophones [ɨ] or [i] depending on the position of occurrence and the morpheme combination. Second, the allophone [e] of the possessive particle '의' was examined by referring to 『노걸대언해본 Nogeoldaeonhaebon』 Furthermore, the cognitive tendency of Taiwanese learners to be influenced by the pronunciation of the corresponding character '的[ê]' in Minnan Chinese was also examined. Finally, since the preference for ligatures among native Korean speakers significantly influence the standard pronunciation learning environment for foreign learner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can help foreign students to grasp the accurate pronunciations and spelling of /-ɨ/ as well as preventing pronunciation and writing errors.

Keywords: Korean language, standard pronunciation education, diphthong /-ɨ/, allophone of /-ɨ/

^{*} Professor of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Chinese Culture University

한국어 이중모음 /ㅟ/의 자질과 표준발음교육에 대하여

鄭潤道*

중국문화대학교

초록

한국어 이중모음/ㅟ/은 어휘뿐만 아니라 속격 조사로도 두루 쓰여 사용 빈도가 매우 높다. 본 연구는 한국어 이중모음/ㅟ/의 다양한 변이음을 연구 과제로 삼았다. 이는 해외 한국어 발음교육에 그 의의가 있다고 여긴다. 본 연구는 한국어 '표준어 규정' 제5항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음성학 및 음운학적으로 [i], [i], [e] 다양한 변이음이 발생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중모음/ㅟ/는 음성적 자질의 변별에서 반모음과 주모음 관별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ɨ] > [i], [ɯi] > [i] 두 가지 변이음이 생성되어 어서 출현 위치와 형태소 배합에 근거해 [ɨ] 또는 [i]로써 발음된다.

둘째, 『노걸대언해본』을 참고하여 속격조사 '의'의 기능을 역사 문헌 고증법으로 고찰하면서 변이음 [e]가 한어漢語 '的'의 기능으로써인 민남어 [ɛ]음이 대만인 학습자의 발음 인지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탐구해 보았다.

또한 한국인 모어자들의 변이음 선호 습성도 해외 학습자의 발음 인지에 주요인으로 작용함도 강조하여 문제점 개선을 촉구하며 다양한 변이음의 생성 요인과 조건을 이해하여 발음과 정서법에서 올바르게 사용해 오류 방지를 위한 참고 자료로 쓰여지기 바란다.

주제어: 한국어, 표준발음교육, 이중모음 /ㅟ/, /ㅟ/의 변이음

* 중국문화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1. 들어가기

한국어는 자질 문자이면서 음소 문자인 한글로 표기하기 때문에 말하기와 쓰기의 일치성이 강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다른 언어 보다도 명백한 ‘통음’을 표준음으로 삼을 수 있는 언어이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한국어 표준발음교육을 통하여 통음을 전수시키기 위해 「표준어 규정」¹이란 어문 규범을 제정하였다. 이에 현행 한국인 모어자의 의무교육 국어 교과목 편성이나 외국인 학습자들을 위한 해외 한국어 교육에서도 ‘말하기’ 영역의 통음은 표준어 발음법에, ‘쓰기’에서 정서법은 한글 맞춤법에 준하여 실시되고² 있는 까닭도 바로 이런 연유에서다.

1.1. 연구 목적과 내용

한국어 이중모음 /-/는 어휘 외에도 속격 조사로 두루 쓰여 그 사용 빈도가 매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질성과 관련 깊은 부음과 주음 음소 간의 간극 구분이 불명확한 음성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하향이중모음식 발음형 [ij] 음가³ 외에도, 변이음으로 /-/ [i], / / [i], /ㄱ/ [e] 3가지 형이 허용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인 모어자의 실제 발음에 있어서도 이중모음식보다는 오히려 발음이 용이한 단모음 변이음들이 현실적인 통음이 되어가는 실정이다. 이러한 추세는 자칫하면 외국인 초급 학습자들에게 자모의 정서법과 발음의 괴리 현상으로 오해되기 쉽다. /-/의 발음은 이중모음식 조음의 어려움보다는 어휘 형태소 및 문법 형태소가 다른 어휘 및 어절 내부에서 어두와 비어두로 쓰이는 위치 및 음소 배합 등에 따라 각기 다른 변이음이 허용되고 있어서, 외국인 초급 학습자에게는 학습 난이도가 높아 발음 오류가 종종 발생한다. 아래 [표1]은

「표준어 규정」 제 2조 5항에 제시된 변이음 허용과 관련해 어휘

¹ 표준어 규정, (1988년 1월 19일 고시), 제88-1호. 가. 한글 맞춤법 규정. 제88-2호 나. 표준어 규정. 제1부 표준어 사정 원칙, 제2부 표준 발음법.

² [시행 2017. 3. 28.]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13호(2017. 3. 28.)

³ 본 논문에서는 지시 대상이 의미하는 바가 표기일 때에는 ‘, 음소일 때는 /, 음성일 때에는 []로 구별하여 사용한다. 동시에 /-/의 단모음과 반모음 음소는 [i]와 [ɨ]로, / /의 단모음과 반모음 음소는 [i]와 [j]로 표시한다.

형태소와 문법 형태에 따른 다른 변이음의 차이를 가시화하기 위해 예시와 함께 정리하였다.

표1: 이중모음 /ㅡ/의 표준발음

문법 범주	음절 구조	발음	예시
어휘 형태소	CGV	[i]	띠어쓰기[띠어쓰기] 씨우다[씨우다] 희귀稀貴[희귀] 희망希望[희망] 흰색(흰色)[흰색] 희석稀釋[희석]
	GV	[i:] / [i]	의문疑問[의문/으문] 의미意味[의:미/으미] 의류衣類[의류/으류] 의사醫師[의사/으사] 의원議員[의원/으원] 의자椅子[의자/으자]
	- CGV	[ɰi] / [i]	건의建議[거:늑/거:니] 고희古稀[고희] 무늬[무니] 유희遊戱[유허] 편의점便宜店[퍼늑점/퍼늑점] 한의사韓醫師[하:늑사/하:늑사] 합의合議[하비/하비] 협의協議[허비/허비]
	- GV	[ɰi] / [i]	강의講義[강:의/강:이] 동의同意[동의/동이] 수의사獸醫師[수의사/수이사] 여의사女醫師[여의사/여이사] 예의禮儀[예의/예이] 정의正義[정:의/정:이] 주의主義[주의/주이] 회의會議[회의/회이]

문법 형태소	비어두	-V GV	[ij]/[e]	아이의[아이의/아이에] 우리의 [우리의/우리애] 나라의[나라 의/나라애] 친구의[친구의/친 구에] 학교의[학교의/학교애]
		-C GV	[ij]/[e]	가족(家族)의[가조끼/가조개] 교실(教室)의[교시끼/교시래] 숲속의[습쏘끼/습쏘개] 병원(病院)의[병위끼/병위네] 한국(韓國)의[한구끼/한구개]
자료출처: 필자 정리		C: Consonant, G: Glide ¹ , V: Vowel		

또한 필자의 교학 경험에 비추어 볼지면, 한국어 초급 외국인 학습자인 경우에 한국어 문법 형태소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탓에 발음 및 쓰기 오류가 빈번히 나타나서 자칫 발음과 쓰기 간의 괴리 현상이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한 예시로, ‘한국의 도시, 강남의 아파트, 경복궁의 경회루’에서와 같이 속격 조사 ‘의’의 선후행 어휘 모두가 지명이나 장소일 경우에 외국인 학습자가 ‘의’를 처격 조사로 잘못 인지하여 받아쓰기에서 ‘*한국에 도시, *강남에 아파트, *경복궁에 경회루’라고 쓴다. 또한 ‘정오의 뉴스, 여름의 바다’의 경우는 시간 부사격 조사로 오인하여 ‘*정오에 뉴스, *여름에 바다’로 쓴다. 그리고 ‘나의’와 ‘너의’ 축약형인 ‘내’와 ‘네’ 어휘에 나타난 음소 /ㄱ/[ε], /ㄴ/[e]가 유사한 발음으로 구별이 어려웠는지 모두 [e]로 발음하다가 자칫 정서법에서 ‘내’와 ‘네’를 가려쓰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오류들은 특히 외국인 초급 학습자들에게서 많이 발생되고 있다. 이는 속격 조사인 ‘의’와 관련한 한국어 음운의 조음적 특질과 문법적 인지의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류로 분석된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표준 발음법에 제시된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

¹ 허용(1979:45)에서는 이중모음의 조음시 나타나는 과도음인 활음의 위치를 기준으로, 그 앞이나 뒤에 있는 과도음보다 간극이 큰 소리들에 딸려 있는 활음 소리를 ‘반모음(Semivowel; semiconsonant)’이라 한다. 비록 엄격한 기능적인 면에 입각해 ‘활음(glide)’ 혹은 ‘접근음(approximant)’ 등으로 구분해 지칭하기도 하지만, 그 속성은 비슷하다고 보아 ‘반모음’으로 통용해 사용하지만 구분의 필요에 따라서는 ‘활음’ 혹은 중국어의 ‘개음(介母, prenuclear glide)’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으로 한다.”²에 유의하여 이중모음 /ㅟ/의 다양한 변이음 생성 요인을 살펴서 해외 한국어 발음교육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제시하여 표준 한국어 통음 전수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1.2. 선행 연구 검토와 한계

우선 선행 연구를 통해 이중모음 /ㅟ/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허웅(1979), 이기문 외(1984) 등의 한국어 음운론 저서에서 비교적 심도 있게 논하고 있으며, 신지영(1999), 김무식(2001), 김경훤(2003) 등 논문에서도 나름대로 전문적인 연구가 되어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한국어 모음 체계에 있어서 이중모음으로서 /ㅟ/의 구조를 상향이중모음 혹은 하향이중모음으로 볼지에 그 초점이 치중되어 언급되고 있었다. 그외 논문들 경우 대부분이 국어사의 통시적 혹은 지역 방언의 모음 체계를 중심으로 고찰한 연구들이었다. 신지영(1999)에서는 이기문에서의 모음 추이적 음운 변화로서의 전설화에 따른 단모음화 필요성 여부를 위주로 하여 재고찰하였다. 그리고 김무식(2001)에서는 음성학적 모음 공명도에 근거해 현대 한국어의 이중모음 /ㅟ/를 상향이중모음으로 보는 견해를 제시했다. 즉 허웅, 이기문 등 원로 기성세대 연구자들이 한국어 음운론의 범위인 모음체계 안에서 이중모음 /ㅟ/의 위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하여 언급을 하면서 음가가 불안정 할지라도 하향이중모음으로 보았다면, 신지영, 김무식 등에서는 /ㅟ/가 그런 음성적 혹은 음운적 자질을 가질 수 밖에 없는 보다 구체적인 증거를 음성적 특질로써 제반 고찰을 시도하면서 상향이중모음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본 논문 주제와 관련한 기존의 /ㅟ/의 변이음 생성과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이중모음/ㅟ/의 음성적인 특질 고찰에 편중되어 주로 한자 어휘 내부의 변이음 [i]와 [i]의 생성과 관련된 연구들이다. 한편 속격 조사 ‘의’의 변이음 [e]와 관련된 연구는 공시적인 지역 방언의 모음 체계와 관련된 연구가 주류이다. 그 중

² 표준어규정, 제2부 표준 발음법, 제1장 총칙, 제1항: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합을 원칙으로 한다.

김경환(2004)에서는 속격 및 처격 조사 '에'를 포함한 '/- / > / ㄱ/' 변화를 /- /의 음성적 불안정성과 남부방언 모음 체계에서 나타난 '[으]~[어]'의 중화 현상에 따른 것으로 보았다. 최근 관련 연구로, '/의 / > / ㄱ/' 변화를 통시적으로 고찰한 여은지(2022)에서는 '/ ㄱ / > / ㄱ /'와 '/- / > / ㄱ /'의 상관 관계를 통해 '/- / > / ㄱ /'로의 변화가 고모음의 영향을 받아 발생한 변화로 간주한 기존 연구와는 달리 '/- / > / ㄱ /'로의 음성 실현 영역의 확대를 보여주는 변화로 보았다. 하지만 '/- / > / ㄱ /' 음운변동 현상이 이중모음 /- / [ii]가 단모음 [e]로의 직접적인 변화인지 아니면 '/- / > / ㄱ /'의 중화 과정을 거친 것인지는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고 그 결론에서 언급한 점과 논문에서 '/- / > / ㄱ /'의 확대 예시에서 속격 조사로서의 용례가 부재한 점 등에서 참고의 아쉬움이 있었다.

2. 음가의 불안정성 요인에 따른 어휘 내 변이음 [i]와 [i]의 생성

2.1. 이중모음 /- /의 조음 구조

자질 문자이자 음소 문자인 한글을 문자로 채용하는 한국어에서는 부음인 반모음과 '+성절성'을 지닌 단모음 모두를 개별적 음소로서 인지해 발음에 반영하고 있다. /- /는 조음구성 요소에서 /- /와 / | / 모두 개별 음소로 인식된다. 그리고 조음과정에서는 선행음소 /- /에서 후행음소 / | /로의 이동을 통해 내는 한 음운의 소리값으로 인식되어 한국어 모음 분류에서 이중모음에 귀속된다.³

2.2. 이중모음 /- /의 반모음과 성절음 설정의 모호함

현대 한국어의 11개 이중모음이 대부분 상향이중모음인 반면에 유일하게 하향이중모음인 것이 바로 /- /이다. 이중모음을 구성하는

³한국어 모음 종류에서는 복합모음에 이중모음만이 존재하여 '복모음'이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반해 중국어에는 어두 자음인 성모(聲母)와 모음인 운모(韻母) 사이에 전이음인 세 종류의 개음(介音, prenuclear glide: / - / [j], / ㄱ / [u], / ㄴ / [yu])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개음(介音)' 뒤에 연결되는 모음이 이중모음일 경우라면 '개음+이중모음식' 삼중모음이 형성되기도 하는 점이 한국어와 다르다.

두 음소 간의 구별 기준은 조음과정에서 부음인 반모음⁴을 기준으로 그 전후에 있는 반모음보다 간극이 큰 음소를 성절음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이중모음을 조음과정에서 음성기관이 일정 위치가 정해지지 않은 한 음소에서 다른 음소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생성된 한 음운의 한 소리값이라 할 때, 그 이동 음성기관으로 혀와 입술이 해당된다. 조음시 이동 양상 모습에서 보편적으로 혀는 간극이 작은 데서 큰 데로 이동하거나, 입술의 경우는 둥근데서 둥글지 않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반대로 혀의 간극이 큰 데서 작은 데로 이동하거나, 입술이 둥글지 않은 데서 둥글게 되는 것도 있다. 이 때에 전자의 이동 양상을 상향이중모음, 후자의 이동 양상을 하향이중모음이라 일컫는다. 한국어 이중모음 /ㅡ/는 그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에서 음소 /ㅡ/의 위치에서 다른 음소 /ㅣ/로 이동하는 양상에 있어서, 전후 음소인 /ㅡ/와 /ㅣ/ 모두가 비원순적 평순모음 속성을 지니어 입술에 상관함이 거의 없다. 아울러 혀의 간극 역시도 두 음소 모두 고모음으로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 단지 혀의 조음 위치에서 중설 조음에서 전설로 옮겨 가는 /ㅡ/→/ㅣ/식 이동 양상에서 반모음을 /j/로 인지해 [jɨ]로 발음하면 하향이중모음인 것이고 [ɨj]로 인지해 발음하면 상향이중모음이라고 인식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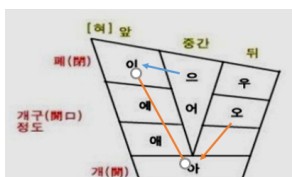


그림1. 한국어 모음 사각도, 자료출처: 필자 제공

하지만 위 <그림1>에서처럼 /ㅡ/는 다른 상향이중모음들과 달리 두 음소간에 간극 차이가 명확하지 않고, 조음 위치에서 중설과 전설의 차이만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반모음 선별의 모호함으로 인해 성절음 설정에도 영향을 끼치어 조음적인 불안정성이 나타난 연유로 하향이중모음과 상향이중모음의 논란이 일고 있다.

이같은 /ㅡ/의 조음상 불안정성은 한국어 발음교육에도 영향을

⁴ 동주3.

미치고 있다. 만약 반모음이 [j]로 인식되면 모음 체계 교육에서 반모음 음소가 [j]와 [w]로 두 개가 되지만, 이중모음 체계에 유일한 하향이중모음이 존재하는 부담이 뒤따르게 된다. 하지만 반모음을 [ɥ]로 인식할 경우는 한국어 모음 체계에 반모음 음소 수는 [j]/[w] 외에도 [ɥ]가 추가된 세 개로 늘어나는 부담이 있지만, 현대 한국어의 이중모음 모두를 상향식 모음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장점도 따른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과 연관되어 현대 한국어의 21개 모음 체계의 일관성 있는 음소 수와 이중모음 양상 교육이 일관성 있게 실시될 수 있는 음운론적인 교육 지침이 우선해 제시되어야 함이 /-/모음의 조음적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지름길이라 여긴다.

이상과 관련해 해외에서 외국어로서 한국어 발음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필자의 견해를 부연해 보면, /-/모음이 음성적 특질에서 그 조음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달리 해석해 보면 상향식과 하향식으로의 조음이 모두 가능함을 시사해 준다. 그래서 모어가 중국어인 대만 학습자에게는 /-/의 조음방식이 별 문제시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중국어 모음체계에는 후행이중모음 외에도 상향식 복합모음이 모두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국어에는 유기음화라고 불리는 격음으로의 축약현상의 경우처럼 자음 /ㅎ/의 위치가 /ㄱ, ㄷ, ㅂ/의 전과 후를 불문하고 /ㅎ/과 축약되어 유기음인 /ㅍ, ㅌ, ㅋ/로 바뀌는 음운변동 현상 역시 절대적인 물리적 축약소리가 아닌 심리적인 음가로도 인지되고 있듯이 개별 언어의 음소의 음가와 음의 변동 현상은 그 언어 음운론에서의 인지 문제가 우선이 아니었던가.

2.3. 이중모음/-/의 변이음 [i]와 [i]의 생성과 관련해

본 단원은 선행연구를 통해, 기존의 음성론과 음운론에 기초한 모음 /-/의 변이음 [i]와 [i] 생성 요인과 관련한 해명들에서 언급된 바를 기초로 정리해 본다.

2.3.1. 한자 어휘에서의 변이음 [i]와 [i]

한국어 이중모음의 일부는 한글 창제 당시 기존에 차용해 문자로 쓰던 한자음의 한글 표기를 위한 것이라고 전해진다. 그리고 표준 국어대사전⁵에 수록된 ‘의’ 음절을 포함한 어휘는 총 6,932개로 그 대부분이 한자 어휘들이다. 앞서 밝힌 연구 목적 또한 중국어와 한자를 사용하고 있는

⁵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대만인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한자 어휘에서의 변이음 요인을 우선하여 고찰해 본다. 이 부분의 연구는 장래 대만인 학습자가 사용하는 중국어 이중모음은 하향이중모음 체계를 따르고 있어 선행 음소를 핵모음으로 취하며, 단음절인 중국어 한자의 특성에서 음절 두음에 자음이 없이 모음 단독으로도 독립적인 음절을 이룬다는 영성모(零聲母)개념에 유의하였다. 이에 대만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j/계 하향이중모음에 대한 인지에서 ‘자음+모음’ 결합의 음절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지, 아니면 한국 한자음의 ‘의’ 한자를 대만 중국어 음소부호인 주음(注音) /-/[i]로 인식해 [i]로 발음하는지 등 모어의 간섭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오류에 대해서도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서이다.

현대 한국어에서 허용된 /-i/ 모음의 음가와 관련된 변이음들은 표준 발음법 제5항(다만3과 다만4)에서 제시한 [i]와 [e]음 외에도 한자음 명사 어휘 어두에 나타나는 [i̯]음이 더 있다.

우선 한자어 어휘 어두에 나타난 ‘의’의 주성절 음소 [i]로의 중화 현상에 따라 생성된 변이음 [i̯]에 대해서 살펴보자. ‘의사醫師’, ‘의자 椅子’ 따위의 한자음 명사 어휘들 가운데서 어두에 표기된 /의/ 발음 [ji]는 [j]를 주성절음으로 간주해 힘을 주며 [i]로 이동하면서 발음 하는 하향이중모음식 양상으로 해명한다. 그 변이음인 [i̯]는 [ji̯] > [i̯] 중화현상 과정에서 반모음 [j] 탈락에 기인한 단모음화로 인해 생성되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즉 한자 어휘인 ‘의사醫師’의 발음은 이중 모음식의 [j sʰa] 외에도 [i sʰa]로, 단모음화된 변이음 [i̯]로써 발음될 수 있다는 해명이다.

아울러 앞서 말한 반모음 선정의 모호함에서 ‘반모음+단모음’식의 상향이중모음으로 간주하여 [ɰi]로도 발음할 수 있다. 반모음 [ɰ]가 뒷소리 성절음의 모음점 [i] 앞에 달려 있는 것으로 간주해 반모음 [ɰ] 탈락에 의한 단모음화로 그 변이음 [i]의 생성이 해명되어지는 논지다. 그래서 ‘주의主義’나 ‘유의留意’ 따위의 비어두 음절 발음이 귀착 모음인 [i]를 주성절음으로 삼아 [tsu ɰi]와 [yu i]로도 발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2002년도부터는 국어 교과과정에 적용된 제7차 고등학교 교 문법 교과서에서는 이상과 같은 이중모음 /-i/의 조음적 특이성 과 논란을 인정하여 ‘상향이중모음’ 혹은 ‘하향이중모음’이란 용어 사용을 기피하고 그냥 ‘이중모음 /-i/’라고만 제시하고 있다. 동시에 어문 규범인 표준 발음법 가운데 그 변이음과 관련된 지침에서도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i’는 [i]로 발음하고 (제5항 다만3),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i̯]로 조사 ‘의’는 [e]로 발음함도 허용한다.(제5항 다만4)”라고만 간략하게 제시 하고 있다.

3. 속격 조사 변이음 [e]의 생성 요인에 대하여

본 단원은 어휘 내 모음 /-i/의 변이음인 [i]와 [i]의 생성 요인 고찰에 이어 한글 창제 이후 출현한 언해본 문헌들에 나타나는 속격 조사의 용례 분석을 통해 어떠한 관습적인 요인이 변이음 허용에 작용하였으며 대만인 학습자의 경우 어떤 모어의 간섭 현상이 발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타진해 보려는 새로운 시도이다.

모음 /-i/는 아래 예시(2)처럼 『世宗御製訓民正音』⁶에서부터 ‘가 온딧소리’ 중성으로 쓰인 고유한 음운이다. 하지만 기본 모음 10자⁷가 아니며서인지 음가에 대한 별도 설명이 부재하여 창제 당시 실제 음가를 추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창제 당시 대부분 이중모음이 한자음의 운모 음가 표기를 위해 창제된 것인 점에 유의하여, 한글 창제 이후 출현한 언해본 문헌들에 나타난 용례를 통해 현행 어문 규범 『표준어 규정』 「표준발음법」 제5항 단서4에 의해 허용되고 있는 속격 조사 ‘의’ 변이음 [e]가 음성적 혹은 음운론에 기초한 것인지, 아니면 혹여 그 어떤 다른 관습적인 요인이 작용했는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에서 아래 고찰을 시도해 보았다.

(1) 가. 矣彔 ㄴ말뫼 ㄴ입겨지라, 其평 ㄴ제라

나. 矣 ㄴ녀기, 矣 ㄴ녀기, .

다. 矣 ㄴ.

라. 矣 ㄴ안안크 ㄴ고져 .

위 예시(1) 가운데 모음 /-i/의 표기를 살펴보면, (1가)는 한자음의 한글 표기로 사용되었고, (1나)의 경우는 속격 조사로서 연철표기되어 초성을 지니게 되어진 경우이며, (1다)는 한자 ‘大凡’의 의미로 언해(諺解)에서 쓰인 부사 어휘 ‘무릇’이다. (1라)는 “누구나(언제나) 편리하게 사용하고자”라는 구절에서 ‘하다’를

⁶ 〈훈민정음 언해본〉: 1459년(세조 5년)에 발간된 《월인석보》의 권두에 수록된 것이다.

⁷ 《世宗御製訓民正音》에서 나타난 중성자 기본 모음은 ‘ㄱ, ㆁ, ㅣ,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로 단모음 6개와 복모음 4개이다.

수식해 주는 부사격 조사로 쓰이고 있다. 즉 모음 /ㄴ/는 한글 창제 초기부터 한자어와 고유어를 불문하고 여러 품사 기능의 어휘들에 쓰인 음운이었음을 엿볼 수 있다.

아래 예시(2)와 (3)은 『老乞大諺解』⁸에서 사용된 모음 /ㄴ/의 용례로, 예시(2)는 /ㄴ/가 다양한 품사 어휘에서, 예시(3)은 격 조사 기능으로 두루 쓰인 경우이다.

(2) 가. 每미日일(제2화), 背비(제3화)

나. 狄딕실선비(제3화), 高麗人아하희들은저기어디니라(제5화)

다. 너희兩姨의게난兄弟라하니(제12화)

라. 어디자고가랴(제6화)

마. 內漢人사툼의손디글비호니(제2화)

바. 오미더디여라(제1화),

사. 이끼이들호호른날(번노제1화), 이리면우리호희끼가져(제6화)

아. 형아네성이여, 내성이王개로라, 네집이어디서사나다, (제6화)

(2)' 가. 한자 명사 '매일(每日)'과 '외우다'란 의미의 '배(背)': 한자음 표기

나. 당일 선비, 즉 당번 학생, 고려인 아이들은 비교적 앞전하다: 고유어 명사

다. 너희 두 이모가(에게서) 난 (이중사촌) 형제라 하니: 2인칭 대명사

라. '(우리 오늘 밤에) 어디에서 자야되나?': 지시 대명사.

⁸ 한문본인 『老乞大』는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최세진에 의해 최초로 번역, 또는 언해되었다고 전한다. 본고에 인용된 용례들은 임진왜란 이후인 현종(顯宗) 11년 경술(庚戌, 1670)에 사역원의 역관(譯官)들에 의하여 다시 언해 되었고 최세진의 표음 방식으로 부분적으로 수정된 『老乞大諺解本』을 채용 하였다.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영인본(2044)을 참고하였다.

마. 내가 漢人(중국인)한테 글을 배웠다: 고유어 동사

바. '오는 것이 더디었다': 고유어 형용사

사. '의미 이달 초하룻날', '그러면 우리 함께 가자': 부사

아. 형님, 당신의 성씨가 어찌되나요? 내(나의) 성은 王씨요. 너의 집은 어디인가?: '내'는 1인칭 대명사⁹, '네'는 2인칭 대명사¹⁰

이상 예시 (2) 어휘들에서 모음 /-이/는 한자어 명사와 동사 어휘의 한자음 표기 외에도 고유어의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어휘 등에 두루 쓰이고 있었다. 그리고 한글 창제 초기 문헌인 훈민정음 언해본에서보다 다양한 품사의 어휘들에서 모음 /-이/가 널리 쓰이고 있었다.

(3) 가. 우리 順城門^문 官店을 향^향하브리오라가자 (제8화).

나. 네이^이 돌^돌 ^그몹^몹끼(제1화), 우리^{우리} 오늘^{오늘} ^밤의(제8화), ^每의^의 ^夜여^여의^의 먹^먹 ^넙과^과콩^콩이(제9화), 내^내전^전년^년의(제9화).

다. 이 여^여숫^숫물^물이^이 ^민의(제1화) ^나혜^혜닷^닷되^되콩^콩과^과 ^훈뭇^뭇딛^딛식^식 ^혀여, 통^통 ^혀여^여 ^혜오^오니^니은^은두^두돈^돈을^을 ^쓰고(제9화).

라. 學堂^의가, 집^의와^와 ^밥먹^먹기(제2화).

마. 네^네언^언제^제왕^왕왕^왕京^京경^경 ^의서^서 ^떠난^난다(제1화).

바. 스승^스이^이 ^우희^희도^도서^서두(제3화), 나^나는 高麗^고사^사람^람이^이라^라 漢^한사^사람^람이^이 ^싸히^히니^니기^기두^두니^니디^디뭇^뭇 ^혀엿^엿노^노니. 네^네모^모로^로미(제6화).

사. 스승^스님^님 ^앞피^피서^서 ^강노^노라(제2화(제2화)), 내^내 ^漢쪽^쪽당^당의^의서^서 ^글비^비호^호라.(제2화).

아. 내^내 漢^한사^사람^람의^의 ^손디^디 ¹¹글^글 ^비호^호니(제2화), 네^네 ^뉘손^손디^디 ¹¹글^글 ^비호^호니? 스승^스님^님 ^씩글^글 ^비호^호고(제2화)

⁹ 『용비어천가』에 나타난 어원은 '나+-이'

¹⁰ 『석보상절』에 나타난 어원은 '너+의'

¹¹ 한자 '根底'의 언해로, "~밑에서, ~가 있는 곳에서"라는 뜻을 갖는다. 문맥상으로 '중국 사람이 있는데서'이나, 한국어 표현에서는 '중국 사람에게'로 해석됨이 더 자연스럽겠다.

- (3) 가. ‘우리 順城門의(에 있는) 여관에 묵으러 가자’ : 뒤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어 구실을 하는 동시에 뒤 체언이 위치한 곳임을 나타내는 격조사.
- 나. ‘우리 오늘 밖에’, ‘매일 밖에 (말들이) 먹는 짬과 콩이’, ‘내가 작년(에)’, ‘이 달 그믐(에)’: 앞말이 시간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다. 이 여섯 마리의 말이 매 한 마리에 콩이 다섯 되(升), 짬 한 묶음씩 먹으니 합해서 계산하면 은 두 돈을 쓰고: 앞말이 기준이 되는 대상이나 단위의 부사임을 나타내는 격조사.
- 라. ‘화당(서당)에 가서’, ‘집(에) 와서’, 앞말이 진행 방향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조사.
- 마. ‘네가 언제 개경에서 떠났느냐?’: 앞말이 출발점의 뜻을 갖는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조사.
- 바. ‘스승님이 그 위에 그려 표시한다’, ‘나는 고려 사람이라 중국 땅(에서)는 익숙하게 다니지 못하니’: 어떠한 움직임이나 작용이 미치는 대상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사. ‘스승님 앞에서 강독한다’, ‘내가 화당에서 글을 배웠다’: 앞말이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조사.
- 아. ‘내가 중국인에게 글 배웠다’, ‘스승님께(‘에게’)의 높임말 글 배우고’: 어떤 행동의 출발점이나 비롯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위 예시(3)의 용례 분석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본다.

1. 문맥의 기능 상에서 “의”가 격 조사로써 빈번히 쓰이었다.
2. 하지만 쓰임의 기능에 있어서 속격 조사보다는 부사격 조사로의 쓰임이 더 많았다.

3. 부사격 조사 종류 가운데 치소격인 “에, 에서”로 쓰임이 가장 많았고, 그외에도 시간격인 ‘에’, 여격인 ‘에, 에게’의 용도로도 두루 쓰였다. 즉, 현대 한국어에서 부사격 조사 ‘에, 에서, 에게’ 따위가 모두 “의”로 표기되고 있었다.
4. 격 조사로 쓰이는 “의” 가운데, 속격 조사로 쓰이는 경우에, 유정(有情) 명사의 양성 모음과 음성모음의 차이에 따라 형태가 ‘의와 의’로 분류되어 쓰이지만, 부사격 조사로 쓰인 경우에는 아마도 앞 체언 대부분이 무정 명사여서인지 그 형태가 “의”로만 표기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아래 예시(4)는 표준 발음법 제5항 다만3에서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ㄱ’은 []로 발음한다.”라는 규정과 관련해 초성 자음을 지닌 한자어의 용례들을 살펴 현대 중국어 한음漢音 표기인 주음 부호식 음소 표시(4가) 및 『老乞大諺解』에 나타난 한글 표기(4나), 그리고 현대 한국어에서의 한자음(4다) 표기를 대조 비교해 보았다. 또한 아래 예시(5)는 초성 자음을 지니고 있지 않은 같은 한자어를 용례로 삼아 현대 중국어 한음漢音의 음소 표기인 주음부호(5가), 『老乞大諺解』에 나타난 한글 표기(5나), 그리고 현대 한국어 한자음 표기(5다)를 대조 비교해 보았다.

(4) 가. 鞞/ㄅㄣˊ/, 賊/ㄗㄝˊ/ 被/ㄅㄣˊ/, 每/ㄇㄟˊ/, 妹/ㄇㄟˊ/, 梅/ㄇㄟˊ/

(注音符號)

나. 鞞비, 賊지 被피, 每미, 妹미 梅미(老乞大諺解)

다. 鞞피, 賊, 積 被피, 每매, 妹매 梅매(현대 한국어 한자음)

(5) 가. 揖/ㄻˊ/, 意/ㄻˊ/, 衣/ㄻˊ/, 疑/ㄻˊ/, 議/ㄻˊ/(注音符號)

나.揖이, 意이, 衣이, 疑이, 議이(老乞大諺解)

다.揖읍¹², 意的, 衣의, 疑의, 議의(현대 한국어 한자음)

이상 예시(4, 5) 분석 결과를 종합해 정리보면 다음과 같다.

1. 우선 예시(4)에서 한글 표기에서 초성 자음이 있는 /-i/ 경우에 『老乞大諺解』에는 이중모음/-i/로 표기되었지만, 현대 한국어 한자음 표기에서는 이미 단모음화된 /i, ɨ, ʝ/로 대체되어 있다.
2. 예시(5) 용례들은 현대 한국어 한자음에서 초성 자음이 없는 /-i/인 경우로, 『老乞大諺解』에서는 중국어 한음 /i/[i]처럼 그 음이 ‘이’로 표기되어 음가가 /i/[i]로 나타나고 있지만, 현대 한국어에는 이중모음 /-i/를 사용한 ‘의’로 표기되고 있다.
3. 동시에 예시(4가)에서 용례의 소개를 통해 대만에서 사용하는 현대 중국어 한자음漢字音 표기인 주음부호식 이중모음 음소 /ㄨ/(ㄨ-) [ej]가 한글 /-i/로 나타난 점에 미루어 중세 국어 /-i/ 음가가 중국어 이중모음 [ej]의 표기와도 관련이 있지 않나 조심스런 소견을 제시해 보았다. 그 근거는 한자 중고음 흔적이 현대 중국어에서 많이 보존되어 있는 방언으로서 민남어 및 하카어가 꼽히는 점과, 현대 중국어에서 이중모음인 /ㄨ/(ㄨ-) [ej]의 구조가 반모음 음소 /-/[j]를 근거로 단모음 /ʉ/[e]가 주성절 음소인 하강 이중모음이라는 점에서도 다소 근거한다.

아래 예시(6, 7)의 경우는 혹여 한국어 속격 조사 ‘의’ 변이음으로 사용되는 /ㄱ/[e] 발음의 원류가 혹시 중국어 ‘的’의 발음에서 연유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에서이다. 즉 민남어의 이중모음 /ㄨ/(ㄨ-) [ej]가 ‘[ej]>[e]’로의 중화 현상에 따라 단모음화된 /ㄱ/[e] 발음에 익숙하다. 그리고 속격조사 ‘의’의 기능이 한어漢語 ‘的’의 기능 으로서인 민남어 [ê]음이 대만인 학습자의 발음 인지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즉 대만 학습자에게 이중 모음 /-i/에 대한 인지에 있어서 중국어에 부재한 /의/[ui] 발음보다는 익숙한 [e]음의 모어 간섭으로 인한 한국어 속격 조사 이음인 /ㄱ/[e]이 영향을 미쳐 선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6) 가. 나의/我的[goá ê], 너의/你的[lí ê], 그의/伊的[ī ê], 우리의/咱的[lán ê], 우리만의/阮的[gún ê]

¹²揖: 읍할 읍, 모을 집, 모을 줌

나. 너희들의/恁的[lín ê], 그들의/伊因的[in ê]

(7) 가. 나의/伊个[ngài ke], 너의/你个[ngì ke], 그의/佢个[ki ke], 우리의/ 伊厝
等个[ngài tén ke]

나. 너희들의/你等个[ngì tén k], 그들의/佢等个[ki tén ke]

위 예시(6)은 대만 민남어에서, 예시(7)은 하카어(客語)에서 한국어 속격 조사 ‘의’에 해당하는 중국어 ‘的’ 발음을 살펴본 결과로 공통된 [e] 발음의 용례를 보여주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상에서 시도한 고찰에 의거해 필자는 현대 한국어에서 속격 조사 ‘의’의 변이음이 /에/[e]로 발음함은 부사격 조사로도 널리 사용된 중세 한국어에서 ‘의’의 문법적 기능이 현대 한국어에서 시간 및 처격 조사 ‘에’, 여격인 ‘에, 에게’ 등의 부사격 조사의 혼용 종합 표기 용도로 쓰였던 점에 근거하여 이중모음 /-i/의 음가는 중국어 주음注音 음소 /ㄟ/[eɨ]의 단모음와도 관련되어 언중들의 언어 사용 관습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고 여긴다. 그리고 용례 (5)를 통해서 『老乞大諺解』에서는 중국어 한음漢音 표기가 주음 부호의 단모음 음소 /-i/[i]에 준한 한글 음소 /ㅣ/[i]로 표기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현대 한국어 한자음 표기에서 이중모음 /-i/로 표기되고 있는 의혹점과 아울러 언중들의 보편적인 변이음 /ㅣ/[i]와 /ㄟ/[e]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현대 한국어 음운과 정서법 에서 이중모음 /-i/가 여전히 남아있는 연유가 동음이의의同音異義 기능의 처격 조사 /ㄟ/ 와의 문자 표기적 구별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후속 과제로 삼아 그 고증과 함리적인 해명을 지속적으로 찾아나가야 하겠다.

하지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모음 /-i/가 비록 『世宗御製訓民正音』에서부터 쓰여진 고유한 모음 음운임에도 불구하고 기본 모음 10자¹³가 아니어서인지, 아니면 한국어 표기 기능으로서의 그 음가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부재한 탓에서도 창제 당시의 실제 음가를 추측하기 어려운 점이 이번 연구 진행에서 느낀 한계였다.

13 『世宗御製訓民正音』에서 나타난 중성자 기본 모음은 ‘ㄱ, 一, ㅣ,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로 단모음 6개와 복모음 4개이다.

4. 기타 문제의 제기

앞서 본 연구는 해외 대학 전공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중모음 /ㄴ/의 발음교육에 있어서도 자질문자인 한글의 우수성을 발양하여 체계있고 일관성 있는 발음교육을 실시해 나가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하면서, 그 무엇보다도 현실 교육 현장에 잠재한 인위적인 환경에서의 오류 조성 요인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본장에서는 외국인인 대만인 학습자에게 실시되는 이중모음 /ㄴ/의 바람직한 발음교육을 위해 교육환경에 잠재해 있는 오류 조성의 문제점을 위주로 짚고 넘어가려 한다.

4.1. 해외 교육현장에서의 애로점과 한계

앞서 모음 /ㄴ/의 다양한 변이음으로 인하여 외국인 학습자에게 발생하는 ‘말하기’와 ‘쓰기’ 간의 괴리 현상을 조성하는 주요 원인이 음성적인 불안정성에서 생성된 다양한 변이음 선별의 어려움에서 야기되었다고 했지만 그 외에도 인위적인 교육환경의 요인도 크게 작용한다. 이에 해외 교육현장의 일선 발음 교사로서 느껴온 문제점들에 대해 개선 방안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을 위한 자모 발음교육은 자연히 초급 학습자를 위한 기초 과정이다. 그러므로 국내외 기존 학자들에 의해 언급된 모음 /ㄴ/의 음성적 불안정성에 근거한 상향이나 하향 이중모음으로 보는 논지, 중세 이후 단모음화의 통시적·공시적 해명들은 외국인 초급 학습자에게는 그 이해 능력뿐만 아니라 알 필요성에서도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하지만 학습 대상이 외국인이라도 한국어 전공자에 대한 발음과 쓰기 교육은 『한글 맞춤법』과 『표준 발음법』 등 어문 규정에 의거해 교육하고 있다. 하지만 난해한 이론과 규범들은 본의 아니게 자질 음소 문자인 특질에 의거해 ‘통음’을 전수시키는 발음교육을 하려함에 오히려 장애가 되기도 한다. 즉 한국어 발음 교육이 ‘한 음운의 한 소리값’에 입각한 교육이어야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이 발양될 수 있다. 하지만 이중모음 /ㄴ/의 경우는 다양한 변이음으로 말미암아 그 거침돌이 되고 있다. 무릇 변이음은 보편적인 어에 두루 나타나는 자연 현상이어서 한국어에도 /ㄴ/ 외의 다른 음소들의 변이음이 있지만 자음 /ㄹ/ 경우처럼 ‘발음’과 ‘쓰기’에서 괴리현상을 야기시키지 않아 의미 구별에 별 지장을 끼치지 않는다. 반해 그러나 이중모음 /ㄴ/의 경우는 발음이 끼치는 영향이 단순한 정서법의 오류인 경우와는 별개 성질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둘째로, 대만인 학습자들인 경우 비록 모국어인 중국어에 /-/ 음운이 부재하지만, 음소 /으/[u]에서 /이/[i]로의 이동을 통한 하향이중모음식 /-/의 발음 학습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오히려 현대 한국어 단모음에 귀속되어 버린 /ㅜ/[ɘ], /꺄/[e]나 /ㅟ/[ø], /ㅠ/[y] 따위에 비해 자질문자적인 음가 인식이 양호한 편이다. 그리고 중국어가 모어인 대만 학습자가 모어에 있는 하향이중모음 뿐만이 아니라 선행 반모음을 개음으로 인식한 상향이중모음식 /-/ [의] 발음도 가능함에도 이음 /에/[e]를 선호하고 있다.

셋째로, 오늘날 해외 한국어 보급의 추진은 거의 정책적이며 그 성과를 위해 첨단 자료통신 및 방송매체를 크게 활용하고 있음에 비추어서도 해외 한국어 발음교육 효율은 더욱 높아져야 마땅하다. 하지만 모어자 한국인도 국어 교육을 통해 본연 /-/[u]나 [u]로 발음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로써의 발음은 거의 망치된 실정이다. 특히 속격 조사의 경우 변이음 /꺄/[e]로써 발음하는 풍조가 만연하다. 이런 풍토의 현실적 교육환경에서 대만인 학습자에게 모어자의 발음습관에 대한 인지 부족과 아울러 말소리에 준한 모어 간섭에 의한 음운 인지의 잘못으로 이음의 선별과 정서법에서 오류가 발생되고 있다고 분석해 본다. 외국인 학습자가 쓰기에서 속격 조사 '의'를 '에'라 적거나 기능이 다른 처격 및 시간조사 '에'로 의미와 기능을 혼동하여 오류를 범하는 사례들이 교육환경적 요인에서 기인한다면 이는 바로 대다수 한국인의 무의식적인 발음 시범 과오와 이를 간과하는 전반적인 교육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라 여기어져 우선적인 개선이 요청된다. 필자는 본고를 통해, 한국어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수법을 구축해 효율적인 교육을 모색코자 하는 일선 교사의 입장에서 교육환경에서 외국인 학습자에게 학습저해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경계하여 문제의식으로 지적해 본다.

5. 맺음말

본 과제를 연구하면서 이중모음 /-/와 관련한 표준발음교육을 위해 국내외 학계에서 뒷받침해 주어야 할 기초 이론의 일관성 있는 해명의 미흡에서 야기된 애로점이라 여겨지는 점들을 종합 정리해 보면서 본고를 마무리 해 본다.

본론 제2장에서 주로 한자 어휘에서 나타나는 변이음 [i]와 [i]의 생성 요인을 고찰해 보았다. 현대 한국어 이중모음 /-i/는 조음시 반모음의 설정 여부에 따라 상향적 혹은 하향적 이중모음으로서도 분류가 가능한 조음 구조상의 불안정성에서 생성되었고, 아울러 어휘 배합 및 형태소의 조건에 근거해 변이음 [i]와 [i]의 사용이 선별되고 있다. 그 결과 음소 /-i/ [i]를 핵모음으로 간주해 /l/ [j]가 부음이 되는 /-i/ [i]로 인식 한다면 한국어 모음 체계에서 유일한 하향이중모음으로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따르는데 반해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l/ [i]를 음절핵으로 보고 /-i/ [i]를 활음으로 볼지든 다른 이중모음들처럼 상향이중모음이라 인치된 일관성 있는 이중모음 체계를 구축시킬 수 있겠지만, 모음 음소 체계에 반모음 /-i/ [i]를 추가로 교육시켜야 하는 부담이 뒤따른다. 그러므로 /-i/의 불안정한 음성적의 요인인 반모음 선정 문제는 음성학적인 해명보다는 음운론적인 해명으로 극복하여, 발음교육에도 일관된 모음 체계를 제시해 주는 교육 지침이 요청된다고 강조하였다.

제3장에서는 실제로 언중들의 현실 발음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속격 조사 변이음 /ㄱ[e]의 생성 요인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는 현대 한국어 속격 조사 ‘의’에 대한 변이음으로 /ㄱ[e]가 허용된 것과 중국어 한자음 표기를 위한 한글 이중모음자의 음가가 중국어 음소인 /ㅈ[e]음가가 관습적인 요인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필자의 조심스런 의구심에서이다. 이는 이음의 허용에 있어서 한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이 고려된 것인지에 대한 해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옛문헌인 『老乞大諺解』에 나타난 용례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에서, 현대 한국어의 부사격 조사 ‘에, 에서, 에게’의 기능을 중세 한국어에서는 종합적으로 혼기해 ‘의’로써 표기하고 있었다. 동시에 속격 조사 한글 표기 ‘의’는 한자어 ‘的’의 기능으로써 그 독음과 함께 중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대만인 학습자에게 나타나는 속격 조사 이음 [e] 발음에 대한 인지 경향이 혹시 중국어漢語 중고음에서 연유한 민남어에 잔재한 [e]에서 비롯됐는지 여부를 조심스럽게 타진해 보는 시도를 통해 통시적으로 15세기부터 19세기에 이르는 장기간에 걸친 부사격 조사 위치에 ‘에’와 ‘의’의 혼기 과정에서¹⁴ 발음상으로도 속격 조사 ‘의’와

14 김성옥(2023:24)에서 각주12) 와세다대학 핫토리문고(早稻田大學服部文庫)에 소장된 『朝鮮語譯』(1750)의 모음 표기를 살핀 박진완(2010:151-153)에 의하면 『朝鮮語譯』(1750)에서는 부사격조사 위치에 ‘에’와 ‘의’가 혼기됨을 보인다는 것 등을 통해 이는 ‘ㄱ’과 ‘ㄴ’이 발음상 구별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ㄱ’과 ‘ㄴ’의 음성적 유사성으로 말미암아 처격 위치에 ‘에’와 ‘의’가 혼기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에’가 혼용해 사용했을 가능성도 시사하지 않겠나 하여 탐색해 본 이번 연구는 시대적 언중들의 언어 사용 관습에 따라 개별 언어가 갖는 도태와 창조적 변천 특질을 존중하여 현실 발음의 관습적 연유에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과 아울러 문헌에 나타난 정서법을 근거로 삼아 실제 발음에 대한 논증을 시도해 보려는 연구는 늘 한계에 부딪힘도 절실히 깨달은 점이 이번 과제 연구의 소득이자 한계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제4장을 통해 교육 환경에서 야기되는 오류 조성의 문제 의식을 환기시켜 보았다. 이는 **한국인 모어자들의 변이음 선호 습성이 외국인 학습자의 표준발음 학습 환경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해 끼치는 영향에 유의하여, 해외 발음교육 현장의 교사로서 느끼는 문제점을 지적해 개선을 촉구해 보았다.**

이상을 종합해 마무리하면, 본 연구에서 논의된 /-i/ 음운의 특성과 어휘 형태소와 문법 형태 조건하에 생성된 다양한 변이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외국인 초급 학습자들에게 한국인 모어자들이 선호하는 발음 방식에 대한 부족한 인식과 오해를 깨닫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동시에 다양한 변이음들 간의 적용 차이를 이해해 선별해서 사용하여 발음과 정서법의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참고 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김민수. 『신국어학』. 서울. 일조각. 1983.
- 이기문·김진우·이상익. 『국어음운론』. 서울. 일지사. 1984.
- 이호영. 『국어음성학』. 서울. 태학사. 1996.
- 허 응. 『국어음운학』. 서울. 정음사. 1976.
- 김성옥. 「16~20세기 한글편지에서의 처격 ‘니’에 대한 음운사적 일고찰」. 『국어국문학』 203. 서울. 국어국문학회. 2023. pp. 1-33.
- 김경환. 「二重母音 ‘니’의 통시적 변화」. 『韓國語文教育研究會』 31-3. 서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3. pp. 51-70.
- 김무식. 「음형태분석을 이용한 이중모음 ‘니’의 특징 연구」. 『語文學』 72. 서울. 한국어문학회. 2001. pp. 1-15.
- 김종규. 「二重母音의 音韻論的 性格에 대하여」. 『語文研究』 38-4. 서울. 어문연구. 2010. pp. 35-66.
- 신지영. 「이중모음 /니/의 시적연구」. 『民族文化研究』 32. 서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1999. pp. 73-97.
- 여은지. 「국어 모음 하강에 대한 통시적 연구, <니>, <니>개 변화를 중심으로」. 『國語文學』 80. 서울. 국어문학회. 2022. pp. 49- 75.
- 임성규. 「기준 모음 설정을 통한 한국어 모음 발음 교육 연구」. 『한국초등국어교육』 49. 서울.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2012. pp. 181-210.
- 정영호. 「국어하향이중모음의 단모음화 원인 재고」. 『韓民族文學』 61. 한민족어문학회. 2012. pp.5-60.
- 정운도. 「이중모음 /니/의 자질과 발음 교육」. 『대만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교육(臺灣學習者之韓語發音教育)』.台北. 冠唐國際圖書有限公司. 2018. pp. 231-63.

UR 참고자료:

한국고전번역원 사이트 · <http://www.minchu.or.kr/>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사이트 · <http://kyujanggak.snu.ac.kr/>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사이트 · [https:// stdict.korean.go.kr /](https://stdict.korean.go.kr/) ◦

Address for correspondence

YUN DO CHUNG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Chinese Culture University
55, Hwa-kang Road, Yang-ming-San
11114 Taipei City
Taiwan

chungyundo@ulive.pccu.edu.tw
Submitted Date: October 31, 2023
Accepted Date: April 22, 2024